

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광주서 신경전

李·여야, 5·18 기념식 참석
민주당, 野 지방선거 심판론 제기
국힘, 항의 피해 별도 통로로 입장



정청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를 듣고 있다. /뉴스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집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찾은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공천’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에 별도 통로를 이용해 기념식장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堂堂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19와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인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있을 수 있었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자를 구했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 오기 전 들었던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故) 양창근 열사가 잡들어 계셨다”며 “짓밟힌 조국의 정의를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분의 가족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시민들과 같은 출입구로 비표를 받고 입장했다. 정 대표는 기념식 전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헌법·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18 정신이 담긴 개헌안 투표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광주 영령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오전 10시40분쯤 도착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측면에 별도로 마련된 통로를 통해 들어갔다. 일부 시민들은 입장하는 이들에게 “내란집단”, “집은 언제 파냐, 집 팔고 와라”, “개X끼” 등 비판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대표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찾았으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돌아간 바 있다.

장 대표는 기념식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80년 광주의 5월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한 페이지”라며 “46년이 지난 지금 현주소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다.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 인터넷기자 syj@metroseoul.co.kr

한미 정상 30분 통화... “동맹 흔들림 없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직접 통화
“인태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미 정상간 통화는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과 미중 간 만남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7일 밤 10시부터 30여분간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 등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요청

해 이뤄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틀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통화라는 점에서 한미 간 공조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축하를 전하고 “미중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중관계 전반과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선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JFS)에 대해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

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재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 간 세부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주로 북한 관련 언급이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다. 북중러 밀착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나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를 이 대통령에게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시

도 눈에 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측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관련 입장 및 호르무즈

항행 자유 보장 기여 방안 등을 언급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JFS 합의 이행을 노력하기로 한 점도 앞으로 양국의 통상·안보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대미투자 이행이나 핵추진잠수함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탄력을 받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30분 남짓한 이번 통화에서 깊이 있는 논의는 못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내달 중순 G7에서 한미 정상 간 조우가 예상되므로, 다음 만남에서 논의를 쉽게 풀어갈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기대가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동맹국 정상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 15분 간 통화를 갖고 방중 성과를 공유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성 만들겠다”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① 양승진 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

10월 아이 출산 앞둔 예비 아빠 시민 가까이서 ‘생활정치’ 다짐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공약

양승진 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경기 안성시 가선거구 1-나번·1992년생)는 오는 10월이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예비 아빠’다.

양 후보는 “(경기 안성시) 공도·양성·원곡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활 속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하고 싶어 출마했다”며 “현재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성, 청년이 머물

고 어른이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후보는 정당 활동을 하며 지역 활동과 봉사를 꾸준히 해왔고,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왔다고 자신했다. 이를 지켜본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양 후보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와 안성에 대해 관심갖고 준비해 온 후보”라고 평했다. 양 후보자의 아버지는 현역 경기도의원인 양윤석 도의원이다.

양 후보는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래서 지역 활동과 봉사, 시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오며 안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나이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보여주거시기 정치보다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며 꾸준히 준비해 온 진정

성을 좋게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께 실력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양 후보는 지역에서 함께한 친구, 동료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안성을 떠나는 것을 보고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안성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도 했다.

양 후보는 “공도·양성·원곡은 안성의 미래 성장축이라 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젊은 세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실행력을 가진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대표 공약도 ‘아이 키우기 좋은(경기) 서부권 조성’이다. 양 후보는 “저는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야간·주말 돌봄체

양승진 후보 프로필
경기 안성시 가선거구 1-나번, 1992년생
현)더불어민주당 안성 지역위 직능위원장
현)윤종군 국회의원

청년특보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자문위원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안성시 MZ세대 부분부장
전)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 대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나에게 지방선거란? ‘미래의 책임’이다.

계 강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다. (편집자주)